



프로복싱 세계챔피언 장정구와 유제두, 김태식, 박종팔, 지인진 씨 등 챔피언들이 모인 가운데 WBC(세계권투평의회) 호세 슬레이만(가운데) 회장이 20일 서울 세종 호텔에서 열린 WBC총회 기념 챔프 2009 MOU 체결식에 참석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프로복싱 살리자”

유제두·장정구·문성길씨 등 왕년의 주먹스타들 한자리에

TV중계 활성화 등 국내 복싱 부활 위한 다양한 방법 제시

왕년의 주먹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재 복싱을 사랑하는 한국 프로복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제두와 장정구, 김태식, 문성길, 박종팔, 지인진 씨 등 세계 챔피언을 지냈던 스타 뿐 아니라 1970~80년대 링을 누볐던 김철호와 최창호, 황준석, 고생근, 이일복 등 30명의 전직 복서들이 20일 오후 서울 세종호텔에 모두 모였다.

또 국제여자복싱협회(IFBA) 스트로급 세계챔피언 박지현을 비롯해 현재 여자 세계챔피언을 벨트를 보유 중인 허은영, 김지영도 자리를 함께 했다.

호세 슬레이만 세계복싱평의회(WBC) 회장이 초청한 오찬에 참석하기 위한 모임으로 역대 한국 챔피언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인 것은 지난해 1월 뇌사 관장

을 받고 세상을 떠난 고 최요상 선수의 장례식 이후 1년이 넘었다.

공식 회동으로는 홍수환, 장정구, 백인철, 변정일 씨 등이 주축이 돼 2006년 12월 부천 삼손복싱체육관에서 한국 복싱 재건을 위한 첫 모임 이후 두 번째다.

오랜만에 모인 탓이 반가운 표정으로 서로에게 인사를 건넨 왕년의 스타들이 이 자리에서 국내 복싱의 부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WBC 라이프라이프 챔피언을 차지한 뒤 15차 방어전까지 성공했던 '왕구' 장정구(46)씨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프로모션 일을 하다 그만두고 현재 산업체계를 관련 사업을 한다는 그는 “지금은 옛날과 상황이 많이 틀려 복싱 중계가 거의 없다”면서 “복싱이 자주 텔레

비전에 중계돼야 선수들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대진료도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때 세계복싱협회(WBA)와 WBC 세계챔피언 벨트를 모두 허리에 찬던 문성길(46)씨도 “한국권투위원회가 복싱 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떤 방향으로든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BA 주니어 미들급 챔피언이었던 유제두(61)씨도 “올해 11월 제주도에서 WBC 총회가 열리는 데 이 기회를 잘 살려 침체한 한국 복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면서 젊은이들이 힘든 스포츠인 복싱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데다 목표 의식도 약하고 취미 생활로 복싱하는 사람이 대다수여서 당분간 한국에서 세계챔피언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사격 지존’ 진종오 민헨월드컵 10m 권총 금



‘차세대 기대주’ 이대명銀

한국 사격의 간판 진종오(30.KT)가 민헨월드컵 10m 권총에서 금메달을 땀냈다.

진종오는 19일(한국시간) 독일 민헨에서 계속된 국제사격연맹(ISSF) 월드컵사격대회 남자 10m 공기권총에 출전, 결선합계 689.4점(본선 586+결선라운드 103.4점)을 쏴 1위를 차지했다고 대한사격연맹이 20일 밝혔다.

진종오는 지난달 창원에서 열린 월드컵대회 이 종목 본선에서 594점으로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결선에 진출했지만 2위에 그쳤다.

이로써 진종오는 자신의 주 종목인 50m 권총에 이어 10m 권총에서도 세계랭킹 1위에 올랐다고 사격연맹은 덧붙였다.

이종목에 함께 출전한 ‘차세대 기대주’ 이대명(21·한국체대)도 686.7점(586+100.7점)으로 3위 벨로루시의 유리 마우하포라우(686.6)를 0.1점 차로 제치고 2위에 올라 한국 사격의 자력을 과시했다. /연합뉴스

여수정보과학고 우수

용인대총장기 남녀유도대회

보성고가 2009 용인대학교총장기 전국남녀고교유도대회 남자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보성고는 20일 전북 고창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부산체고를 3-1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여자부에서는 여수정보과학고와 결승에서 화원고를 역시 3-1로 물리치고 우승했다.

남자부 3위는 동지고, 원광고가 차지했고 여자부에서는 영선고와 광영여고가 3위에 올랐다.

지도자상은 이상은(보성고), 김영휘(여수정보과학고)에게 돌아갔고 고병영(원광여중) 심판이 모범 심판을 수상했다. /연합뉴스

“현재 팀이 역대 최강”

맨유 퍼거슨 감독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이끄는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산소 탱크’ 박지성(28)이 활약 중인 현 멤버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나타냈다.

퍼거슨 감독은 20일(이하 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와 인터뷰에서 “지금 팀이 내가 보유했던 역대 팀 중에서 최고”라고 밝혔다.

2008-2009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 확정으로 맨유가 3년 연속 리그 정상에 오른 데다 지난 3월 칼링컵 우승, 올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등으로 현재 멤버 구성에 큰 만족감을 표시한 것이다.

퍼거슨 감독은 “우리는 지금 대략 28~29명의 환상적인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페데리코 마케다와 다니 웰벡, 로드리고 포세코, 대런 깁슨, 라파엘, 파비오 등 기대주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김용경·정다운·위진혁·오혜성 金 명종

광주시회장배 사격대회

제1회 광주시 회장배 사격대회에서 김용경(서광중) 등 4명의 중학부 명사수가 탄생했다.

김용경은 20일 광주 남부대사격장에서 열린 대회 여중부 소총경기에서 396점을 기록, 김정원(상일중·390점)·백현진(상일중·382

점)를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동아여중 정다운은 여중부 권총에서 371점을 쏴, 김은 학교 김세벌(370점) 보다 1점 앞서 1위를 기록했다.

남중부 권총경기에선 위진혁(체육중·537점), 소총에선 오혜성(서광중·571점)이 김정용(체육중)·이상욱(서광중)을 각각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男 프로배구선수들 “FA제도 도입하라”

오늘 도입 촉구 기자회견

프로배구 선수들이 FA(자유계약선수) 제도를 도입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프로배구 발전을 염원하는 선수들의 모임’(가칭·임시대표 석진욱)은 21일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프로배구 FA 제도 도입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 모임은 석진욱(삼성화재)을 비롯해 이경수(LIG손해보험), 박철우(현대캐피탈), 신영수(대한항공) 등 프로배구 남자부 선수

46명이 참여하고 있다.

석진욱은 “야구, 축구, 농구 등 다른 프로스포츠에는 모두 FA 제도가 도입돼 있고 여자배구도 이미 FA를 시행하고 있다. 연맹과 구단의 결정을 기다려왔지만 선수들의 권익이 계속 침해되지만 할 뿐이어서 요구 사항을 알리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우리 모임이 선수협회나 선수 노조를 결성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일 기자회견에는 FA 제도에 찬성하는 동료들이 참석해 선수들의 뜻을 전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임은 FA 제도 도입 외에 에이전트를 통한 계약제도 도입, 선수의 구단 선택권이 없는 드래프트 제도 개선, 다년 연봉계약 제도 도입, 구단의 의사에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보류제도 개선 등 5개 항목을 요구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이에 대해 “3년 전부터 FA 제도를 준비해왔고 이를 도입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 “다만 각 구단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차이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체고 권지은 ‘태권여왕’

5·18기념 전국태권도대회 여고 해비급 김영민 꺾고 금

한국유니버시티 권지은(광주체고 2년)이 ‘태권여왕’에 올랐다.

권지은은 20일 광주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제11회 광주 5·18민중항쟁 추모기념 시장기 전국 남녀 중·고태권도대회 여고부 해비급 결승에서 김영민(계산여고)을 8-3으로 꺾고 금메

달을 차지했다.

이로써 권지은은 지난 4월 강원도 삼척에서 열린 아시아유니버시티선수권 우승에 이어 올해 전국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권지은은 이날 경기에서 오른발 몸통 받아차기와 뒷차기로 득점하면서 여유있게 경기를 마무리지었다.

이날 결승에 앞서 권지은은 준결승에서 김은선(무원고)을 기권승으로 누르고 결승에 올랐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신기록 수영복’ 10종 세계대회서 퇴출

국제수영연맹(FINA)이 세계신기록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은 최첨단 수영복이 퇴출됐다.

FINA는 20일 스위스 로잔에서 전문가 위원회를 열고 전체 348종의 수영복 중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10종(2.9%)의 경기용 수영복을 오는 7월 로마세계대회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136종(39.1%)의 수영복은 제조사에 디자인 등을 부분적으로 바꿔 한 달 안에 다시 제출해 다시 심의를 받도록 했고 202종(58.0%)의 수영복은 사용을 허용했다. /연합뉴스

부동산경매의 성공투자는 —

한국경매 한국법률경매(주)

☎ 062) 225-1688 H.010-3565-2888

※ 위치: 자산동 법원 버스정류장 앞 ※ 무료주차시설 완비

잠깐!! 경매입찰 대리업무는 공인중개사로서 법원매수신청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법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순회매수책임보험 1억원 가입업체) ※ 투자자실 및 재테크상담 대환영

지역	소재지	면적	총/상수	감평가	최저가
서울	동대문 금호아파트	39	20/20	1억6000만	1억1200만
	금호동 금호아파트	38	18/18	1억8000만	1억3300만
	금호동 리안아파트	37	17/18	1억2000만	8400만
	마포동 현대아파트	32	15/8	1억9000만	1억3300만
	종로동 현대아파트	49	16/1	1억8000만	1억2600만
	화랑동 남산아파트	47	10/9	1억6500만	1억1500만
	쌍문동 유산트린	33	17/15	9000만	6300만
	화랑동 e편한세상	55	22/22	4억	2억8000만
	금곡동 현대아파트	32	20/17	1억2000만	8400만
	지평동 한국아파트	24	15/1	7800만	5480만
남부	지평동 송호아파트	39	17/8	1억9000만	1억3300만
	동대문 금호아파트	32	20/9	1억3000만	9100만
	신원동 고운하이힐리	32	12/1	1억4000만	9800만
	홍성동 명지아파트	27	15/5	6000만	4200만
	수원동 금영아파트	32	20/9	1억2800만	8900만
	산성동 현대아파트	32	20/7	9500만	6850만
	신원동 현대아파트	50	15/12	1억6500만	1억1500만
	광안동 현대아파트	32	18/7	8000만	5600만
	동원동 현대아파트	32	20/8	1억1000만	7700만
	동원동 현대아파트	27	5/3	4300만	3090만
북부	신원동 현대아파트	24	20/15	6200만	4390만
	연제동 현대아파트	61	20/14	1억6500만	1억1500만
	연제동 현대아파트	24	12/2	5400만	3700만
	동원동 현대아파트	58	18/12	1억7000만	1억1900만
	동원동 현대아파트	52	16/4	9000만	6300만
	동원동 현대아파트	32	15/13	1억5000만	1억1500만
	연제동 현대아파트	32	15/1	1억6300만	1억100만
	신원동 리안아파트	24	13/7	5300만	3700만
	신원동 리안아파트	24	10/5	6000만	4200만
	신원동 현대아파트	24	5/2	5500만	3850만
광안구	도산동 현대아파트	24	13/10	5900만	4100만
	월계동 현대아파트	28	5/3	9800만	6800만
	월계동 현대아파트	34	15/9	1억1000만	7700만
	월계동 현대아파트	32	15/11	1억1000만	7700만
	월계동 현대아파트	27	22/18	8200만	5700만
	월계동 현대아파트	34	15/8	1억3000만	9100만
	월계동 현대아파트	21	25/12	6500만	4550만

2009년 이탈리아 본고장 유럽형 정통 스쿠터 램브레타 럭셔리 125 국내시판

유럽 현지 절찬리 판매중인 2009년형 이탈리아 오토바이 3대 브랜드 명품 램브레타 드디어 국내 상륙!

SMC서울모터스 직수입 유럽 현지 가장 인기있는 판매 1위 모델! 이태리 감성의 현대적 디자인과 고전미를 가미한 모델로 유럽과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디자인과, 성능, 품질을 갖고 있으며, 중, 고속용으로 등급 최고 우위를 지킨다. 국내 출시 기념!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 및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하루 2,700원 (월 82,000원) 24개월 할부판매를 하고 있다. A/S는 1년 10,000km 무상보증수리 및 리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태리 3대 명품 브랜드 램브레타 럭셔리 125를 내 자신의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기회! 소유가 시대를 대중교통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유럽의 명성 그대로

4-레인지 엔진(공칭 출력 14.7kW) 14.7kW 14.7kW 14.7kW
 4-레인지 엔진(공칭 출력 14.7kW) 14.7kW 14.7kW 14.7kW
 4-레인지 엔진(공칭 출력 14.7kW) 14.7kW 14.7kW 14.7kW
 4-레인지 엔진(공칭 출력 14.7kW) 14.7kW 14.7kW 14.7kW

지역	소재지	면적	총/상수	감평가	최저가
광안구	정자동(해운대) 내	1500/1454	2층	31억	16억
북부	대원동(해운대) 내	798/912	3층	28억3000만	14억7000만
남부	신원동(해운대) 내	1243/547	2층	4억3600만	2억4000만
남부	신원동(해운대) 내	1833/715	2층	7억8400만	4억3900만
연제동	연제동(해운대) 내	889/193	2층	7억1200만	4억9800만
정자동	정자동(해운대) 내	348/253	2층	7억4000만	4억1900만

상담전화 070-7786-8710/070-7786-9710